SNU
Laboratory for
Environment and
Energy
LabE²
환경에너지연구실

팬덤 기반 환경행동 공동체는 어떻게 실천공동체로 작동하는가: 야구팬덤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협동과정 환경교육전공 김소현

서론

최근 정서적 유대를 기반으로 한 학습이 기후위기 대응의 대안적 접근으로 주목받고 있다(Sterling, 2010). 팬덤은 강한 정서적 몰입과 상호작용을 통해 자발적 학습이 일어나는 비형식 학습의 장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특히 야구 팬덤은 경기장이라는 물리적 공간을 매개로 집단적 경험을 공유한다.

프로야구 팬들은 폭염·폭우로 인한 경기 취소나 대규모 쓰레기 발생을 직접 겪으며 이를 기후위기와 문화의 지속가능성 문제로 인식하고, 팬덤의 유대와 결합해 환경행동 공동체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모든 환경행동 공동체가 공유된 실천과 상호학습을 축적하는 실천공동체로 발전하는 것은 아니며, 일회성 캠페인에 머무는 경우도 많다.

이에 이 연구는 야구 팬덤 기반 환경행동 공동체 'KBO Fans for Planet (크보플)'을 사례로, 이 공동체가 실천공동체로 기능하는 양상과 작동 조건을 분석하고, 비형식 공동체에서 학습이 지속되는 요인과 확장 가능성을 탐색한다. 이를 통해 비형식적 공동체에서 학습을 지속시키는 요인을 밝히고, 유사한 공동체에도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연구 질문

1. 팬덤 기반 환경행동 공동체가 실천공동체로 작동하는 경우, 어떤 특성을 보이는가?
2. 환경행동 공동체를 실천공동체로 작동하게 만드는 요소는 무엇인가?

연구 방법

이 연구는 팬덤 기반 환경행동 공동체의 실천공동체적 작동 양상을 탐색하기 위해 목적 표집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오프라인 실천과 상호작용이 활발한 프로야구 팬덤 공동체 'KBO Fans for Planet (크보플)'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자는 SNS 분석과 직접 참여를 통해 구성원 간 상호작용을 관찰하였으며, 크보플이 자발적 실천 속에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실천공동체의 특성을 지님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1. 크보플의 실천공동체적 특성

이 연구는 Wenger(1998)가 제시한 **실천공동체의 핵심 요소를 분석 틀로 삼아**, 크보플 내부에서 그 요소들이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살펴보았다.

크보플의 공통 관심사 :"죽은 지구 위에서는 야구도 존재할 수 없으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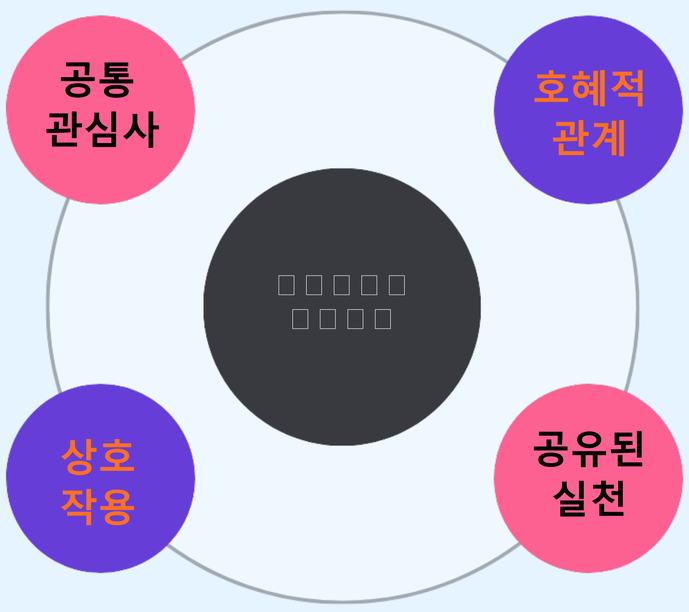
창립자는 경기장에서 반복적으로 목격한 과도한 일회용품 쓰레기 문제를 개인의 불편이 아닌, 팬덤이 함께 해결해야 할 공동의 과제로 정의하였다.

이에 공감한 팬들이 참여하면서, 문제의식은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함께 정한 것'으로 자리 잡았다. 이는 자발적 참여와 공동의 문제 정의라는 비공식적 실천공동체의 핵심 특성을 보여준다.

크보플의 상호작용: "좋아하는 팀은 다르지만, 서로 이야기하며 배워요."

크보플은 서로 다른 팀을 응원하는 팬들이 '지속가능한 야구'를 목표로 각 구장의 친환경 정책과 현장 경험을 공유하며 배움의 장을 만들었다.

이 공동의 목표는 팬덤의 경계를 넘어선 상호작용을 이끌었고, 대화는 카드뉴스 제작 등 실천으로 확장되었다. 팬들은 이를 통해 단순한 문화 소비자가 아닌 서로에게 배우는 학습자이자 실천가로 자리매김하였다.





크보플 구성원들의 관계: "다 같은 야구 팬이라는 게 뚜렷한 공통 분모가 되어줘요."

크보플은 '야구팬'이라는 정체성을 기반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실천 과정에서 신뢰가 강화되었다.

초기에는 창립자 중심으로 활동이 이루어졌으나, 역할이 점차 분산되었고, 구성원들은 카드뉴스 제작 · 인터뷰 참여 등 구체적 과업을 수행하며 공동체의 일원임을 체감하였다.

크보플의 실천: "함께 만든 흐름이 쌓여 크보플만의 실천이 되었어요."

크보플의 실천은 Reed 외(2010)가 제시한 세 차원으로 설명된다.

첫째, 상호 관여는 구성원들이 함께 논의하고 조율하는 과정으로, 채팅방과 정기회의를 통해 이루어졌다.

둘째, 공유된 표현양식은 카드뉴스와 공동 문서를 통해 형성된 공통의 언어와 기록 체계로, 참여자의 적응과 정체성을 강화했다.

셋째, 실천의 체계는 다회용기 커피차와 지속가능한 응원도구 개발 등 공동 목표를 기획–실행–평가하며, 단발적 행동을 넘어선 공동 실천으로 발전했다.

2. 실천공동체를 가능하게 하는 요소들

인적요소	환경적요소	성과적요소
• **야구팬으로서의 정체성 :** 환경 문제를 '지속가능한 야구'라는 공동 과제로 전환하게 하여 실천의 동력을 형성함.	• **물리적 측면 :** 약 30명 내외의 소규모 구성은 의견 공유와 반영을 용이하게 하여 참여와 학습을 활성화시킴.	• **개인적 성과 :** 크보플 활동이 전공과 진로와 연결되어, 구성원들의 경험이 경력 자산으로 전환됨.
• **자발성과 진취성** : 새로운 시도와 적극적 개입을 가능하게 하여, 신뢰와 개방적 소통의 문화를 확립함.	• **제도적 측면 :** 시민 주도형 지원 제도의 확대가 아이디어의 실행과 피드백을 가능하게 해, 학습–실천의 순환 구조를 만들어냄.	• **공동체적 성과** : '야구 팬덤 기반 환경 실천'의 희소성이 언론 보도와 사회적 인정을 이끌며, 공동체의 대표성과 지속 동력을 강화함.

시사점

크보플의 경험은 비형식적 모임이 자동으로 실천공동체로 이어지지 않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다른 비형식적 모임들이 공동의 실천을 중심으로 학습과 관계를 심화하며 실천공동체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실천공동체로의 전환에는 정서적 유대, 제도적 기반, 외부의 인정과 같은 조건이 필요했으며, 크보플은 그 교차 지점을 잘 드러낸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환경 영역을 넘어, 다양한 사회적 의제에서도 비공식 공동체가 학습과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제도적 교육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사회적 학습의 가능성을 드러내며, 비형식 실천공동체에 대한 학술적 관심을 환기시킨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